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사회

이대남 vs 이대녀, 인권 의식 가장 차이 나는 분야는?

정명원 기자

작성 2022.04.03 13:24 조회 5,496

프린트

글자 크기



SBS 연예뉴스

가십보단 팩트를,
재미있지만 품격있게!



이 시각 인기기사



[영상] 현실판 범퍼카? 외제차만 보면 달려든 오토바이

이른바 '이대녀'와 '이대남'가 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들 MZ세대 남녀가 가장 큰 인식 차이를 드러낸 분야는 여성인권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21년 국가인권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인권 개선 수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의 성별 차이가 20~30대에서 가장 컸습니다.



한국 오는 마룬5, 또 욱일기 썼다... 2019년엔 이런 일도

1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만7천593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 16일부터 11월 8일까지 진행됐습니다.

0 30대 이하는 5천770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32.8%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인권이 전반적으로 존중된다고 느끼냐는 물음에 2030 남성은 82.3%가, 여성은 76.7%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효리♥이상순 커피숍, 주변 상권 초토화"...저격 등장

2030 남성 중 10명 중 8명은 본인의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답했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90.3%로 다른 연령·성별 집단보다 높았습니다.

반면 2030 여성은 동년배 남성보다 인권 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대남 vs 이대녀, 인권 의식 가장 차이 나는 분야는?

응답자에게 대우받을 권리, 주거권, 노동권, 사회보장권, 안전권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응답한 비율이 다른 집단보다 높았고, 노인·장애인·이주민·아동청소년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2030 여성 10명 중 9명은 '겉으로는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고 타인의 권리는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이런 남녀의 시각차는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에서 더 크게 드러났습니다.

2030 남성 10명 중 9명은 여성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답한 반면, 2030 여성은 10명 중 7명만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전체 연령·성별 집단 중 2030 남성이 가장 긍정적으로 답했고, 2030 여성은 가장 부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연구진은 "전체 응답 중 우리나라에서 여성이 인권침해와 차별을 많이 받는 집단이라는 응답은 8.3%에 불과해 다른 인권취약집단에 비해 낮은 수치였다"며 "표면적으로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인권침해와 차별을 덜 받는다고 볼 수 있지만 집단별로 보면 여성 내부에서도 세대별로 큰 편차를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조사 결과에 근거해보면 향후 인권침해나 차별 해소를 위한 교육이나 정책을 실시할 때 여성을 취약계층 전체로 보지 않고 이들 내부의 세대 차이를 고려해 맞춤형 교육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정명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

1113

()



"그사람 너무 별로였어"...김종민이 폭로한 신지 전 애인



"피해자가 자퇴하는 상황입니다" 카이스트에서 무슨 일

많이 본 뉴스

1. 기름값 내리고, 대출 제도 바뀌고...오늘부터 달라지는 것
2. "퇴치해 주세요" 민원 쏟아진 이 벌레, 뜻밖의 역할 있다
3. 온열 질환자, 지난해보다 2배 '경충'...열사병 추정 사망도
4. 김지수 "11년 전 골수 기증한 남학생 결혼한다고...이건 기적"
5. "밤에 서너 번 넘게 깨고..." 5년 사이 급증했다는 이 병
6. 철원서 대전차치러 폭발 추정 사고...1명 사망
7. 이효리·이상순 제주 카페, 대기 줄 100m 문전성시...결국 사고 "예약제로 변경"
8. '한국이 1위가 아니라고?'...라면 소비량 1위 국가는 어디?

Pick

더 보기



이대남 vs 이대녀, 인권 의식 가장 차이 나는 분야는?

11월 내한 앞둔 마룬5...홈페이지엔 '육일기' 형상이 딱하니

유아차 끌던 美 엄마 노렸다...뉴욕 한복판 '묻지마 총격'

뉴스영상

더 보기



"윤 대통령 만났다" 바이든, 악수 장면 올리며 윤석열 대통령 언급..."한미일 협력 필수적"

경찰 반발에 지구대 찾아가간 행안부 장관..."경찰 장악은 과장, 일선 영향 없어"

종로 르메이에르 빌딩 흔들림 신고... 주민 대피

공지사항 [채용] SBS디지털뉴스랩 웹 개발자, 서비스 기획자(경력) 채용

앱 소개

SBS D 포럼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분야별	다시보기	취재파일	팟캐스트	멀티미디어	비디오머그	스브스뉴스	바로가기
최신	8뉴스	취재파일	골라듣는 뉴스룸	사실은	전체보기	스브스뉴스	시청자 참여
정치	모닝와이드	월드리포트	VOICE	Pick	섹션	스브스스토리	About SBS
경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軍심戰심		마부작침	시리즈	모닝스브스	SBS Family
사회		날씨와 기후		끝까지 판다	About MUG		지역민영방송
국제	오뉴스	스포츠 비하인드		더 보기			웹광고
생활 · 문화	나이트라인	영상토크					개인정보처리방침
연예	뉴스토리						
스포츠	SBS 스페셜						
이슈	라디오 뉴스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61 대표이사 박정훈 방송관련문의 (02)2061-0006 뉴스기사제보 (02)2113-6000 찾아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61 대표이사 박진호 고객센터 문의 (02)2113-6700 Email sbsdlab@sbs.co.kr 사업자 번호 344-87-00992

기사배열 원칙 책임자 : 정호선 기사배열 기본 원칙

© SBS & SBS Digital News Lab all rights reserved.